

지방 이전 공공기관 청사 착공 본격화, 세종시 3단계도

이 흥 일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hilee@cerik.re.kr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사업은 수도권외의 지역 발전과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한 지방 육성 정책의 필요성 대두로 2003년부터 추진되었다. 혁신도시의 경우 2007년 1월 「혁신도시특별법」 제정으로 공공기관 이전사업 계획이 구체화되었고, 2010년 국토해양부의 이전 대상 기관 부지 매각 계획 확정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이 2011년 상반기까지 8차에 걸쳐 모두 승인되었고, 신청사 건립 공사의 착공 건수도

2011년 들어 증가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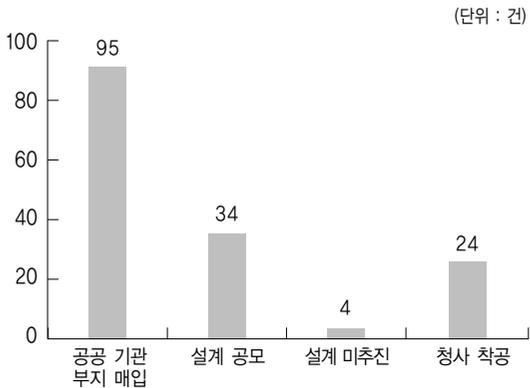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총 157개 기관인데, 157개 기관 중 124개 기관은 혁신도시로, 17개 기관은 세종시로, 나머지 16개 기관은 기타 지역으로 이전한다. 혁신도시의 경우 수도권과 대전청사가 있는 대전을 제외한 10개 광역 시도로 이전 기관을 배치하였는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끼

시도별 공공기관 배치 현황

시·도	기관 수	기능 분류	이전 기관
부산	13	해양 수산, 금융, 영화 등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등
대구	11	산업·학술, 가스산업 등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교육학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공사 등
광주/전남	15	전력산업, 농업 진흥 등	한국전력공사, 한국KDN, 한전KPS,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울산	10	에너지산업, 근로복지 등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강원	12	광업, 건강 생명, 관광 등	한국광물자원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 등
충북	11	정보통신, 인력 개발 등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전북	12	농업 생명, 국토 개발 등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식품연구원, 국민연금공단, 대한지적공사 등
경북	13	도로교통, 농업, 전력 기술 등	한국도로공사, 국립종자원, 한국전력기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경남	11	주택, 건설, 중소기업진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제주	9	국제 교류, 교육 연수 등	국제공무원교육원,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주 : 개별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 기관은 제외된 내용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청사 건립 공사 현황



주 : 2011년 9월 말 기준. 자료 : 국토해양부.

혁신도시 시도별 착공 공공기관 현황

구분	기 착공 기관
부산	한국남부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예탁결제원, 국립해양조사원
대구	한국가스공사, 중앙신체검사소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우정사업정보센터
울산	한국석유공사, 노동부종합상담센터
강원	없음
충북	한국가스안전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전북	지방행정연수원, 대한지적공사
경북	한국도로공사, 우정사업조달사무소
경남	없음
제주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주 : 2011년 9월 말 기준.

리 묶어서 배치하였다. 그 결과 대략 시도별로 약 10개 내외의 기관이 배치되었다.

신청사 착공 일정 지연

지방으로 이전하는 총 157개 공공기관 중 청사 임

차 이전 기관(30개)을 제외하면 총 127개(1) 기관이 청사를 신축·이전해야 하는데, 지난해 5월 말 기준으로 127개 기관 중 95개 기관이 부지를 매입하였고, 106개 기관이 청사 설계를 실시하였다(설계 중인 기관 포함). 모든 신축 이전 기관의 건축비는 대략 10조 원이며, 지역 건설사가 총 건축비의 40% 이상을 공동 도급하도록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2011년 2월)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1년 말까지 80개 기관 착공, 2012년 이후에 47개 기관을 착공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2011년 9월 말 현재 24개 기관만이 착공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교육원 등 7개 기관은 건물을 이미 준공했고, 캠코 등 10개 기관이 착공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시도별로는 부산 혁신도시에 한국남부발전 등 6개 기관이 착공을 완료하여 가장 착공 기관 수가 많은 상황이다. 반대로 강원, 경남 등은 지난 9월까지 착공한 기관이 하나도 없어 진행이 가장 늦은 지역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전 공공기관들이 종전 부동산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11년 9월 말 기준으로 지방 이전 대상 기관들이 보유한 117개 매각 추진 부동산(10조원 규모) 중 매각이 완료된 곳은 21개(18%)뿐이다. LH공사도 재정난으로 공공기관 부동산 매입이 쉽지 않아 지방 이전 기관의 기존 부동산 매각은 향후에도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발주·착공 활성화 예상

2011년 10월에 10개의 공공기관이 추가적으로 착공하였지만, 종전 부동산 매각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2011년에

특집 새해 건설산업의 주요 키워드

2012년 세종시 예산(안)

(단위 : 억원)

구분	2010 예산(A)	2011년 예산(B)	2012년 예산(안)	증감(B-A)		비고
				금액	%	
계	6,951	7,859	8,645	786	10.0	
중앙 행정기관	1,375	2,409	4,019	1,610	66.8	
광역교통시설	3,676	3,191	2,137	-1,054	-33.0	오송역, 당진~대전, 정안나들목, 조치원, 오송역~청주공항
복합 커뮤니티센터	778	820	311	-509	-62.1	
그 외	1,122	1,439	2,178	739	51.4	지방 및 국가 행정시설 (국립도서관, 총리공관, 교육청사, 아트센터, 우체국 공동구 등)

자료 : 행복도시건설청 및 연합뉴스 기사(2011. 6. 30).

착공 계획이 잡혔던 기관 중 약 30개 내외의 기관은 착공 시기가 2012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발주 기준으로는 2011년 하반기에 혁신도시와 관련해 총 3조 4,000억원이 발주될 예정이었지만, 이 또한 일부 건설공사는 2012년으로 발주가 연기되었다. 결국 지방 이전 기관의 청사 건립 공사 발주 및 착공 지연으로 인하여 2012년에는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공사 발주 및 착공이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기관 이전 완료 시기 역시 당초 계획상으로는 2012년까지 대부분의 기관들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추진 과정을 감안하면 2013년에도 모든 기관의 이전이 완료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종시 - 2012년 말 1단계 이전 시작

한편, 세종시 건설과 관련해서는 행복도시건설청에서 2012년도 세종시 건설 예산(안)을 8,645억원으로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는 2010년 예산인 7,859억원보다 10.0%(786억원) 증액된 규모이다.

사업별로는 중앙 행정기관 건립 4,019억원, 광역교통시설 건설 2,137억원, 복합 커뮤니티 건립 311억원, 그 외 지방 및 국가 행정시설 건립 등에 2,178억원이 편성되었다.

중앙 행정기관 건립 사업은 2012년 말 1단계 이전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완료한다는 당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11년 예산 2,409억원보다 66.8%(1,610억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다. 특히, 정부청사 건립 3단계 공사가 2012년에 발주가 예상된다. 광역교통시설 건설 예산을 보면 2012년 말 완공 예정인 오송역 연결 도로와 당진~대전 고속도로 정안나들목 연결 도로 건설에 각각 157억원과 626억원이 반영됐고, 2012년에 착공되는 조치원 연결 도로와 오송역~청주공항 연결 도로 건설비 25억원과 35억원도 포함되었다.

총리공관 완공 사업비 121억원과 아트센터 건립비 135억원, 우체국 건립비 53억원, 세종시청사 건축비 440억원, 세종시 교육청사 건축비 140억원 등도 2012년 예산에 포함되었다. CERIK